

5월 16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IDAHO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

2015.5.16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동 | 일시_2015년 5월 16일(토) 2시 | 장소_서울역 광장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합시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은 2004년 국제 성소수자 운동에서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5월 17일을 기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5월 17일이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에 맞선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7년 5월 16일에 '긴급작전: 오바로크! 이명박 동성애 혐오발언'라는 이름의 사이버 시위를 벌이면서 이 날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성소수자운동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5월 17일을 기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법과 제도에서 드러난 혐오의 시선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캠페인,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는 조직화된 성소수자 혐오가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집단들의 행동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와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성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모욕하며 퍼레이드를 방해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 인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사실상 무산됐고, 성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정당하게 선정된 사업 집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최우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됐고, 유엔에 제출할 국가인권위 보고서에서 성소수자 인권관련 사안이 모조리 삭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의 목소리에 맞서 함께 행동합시다.

2014년 12월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을 점거 농성은

혐오에 맞서 행동하고 연대할 때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에 맞서 목소리 높이고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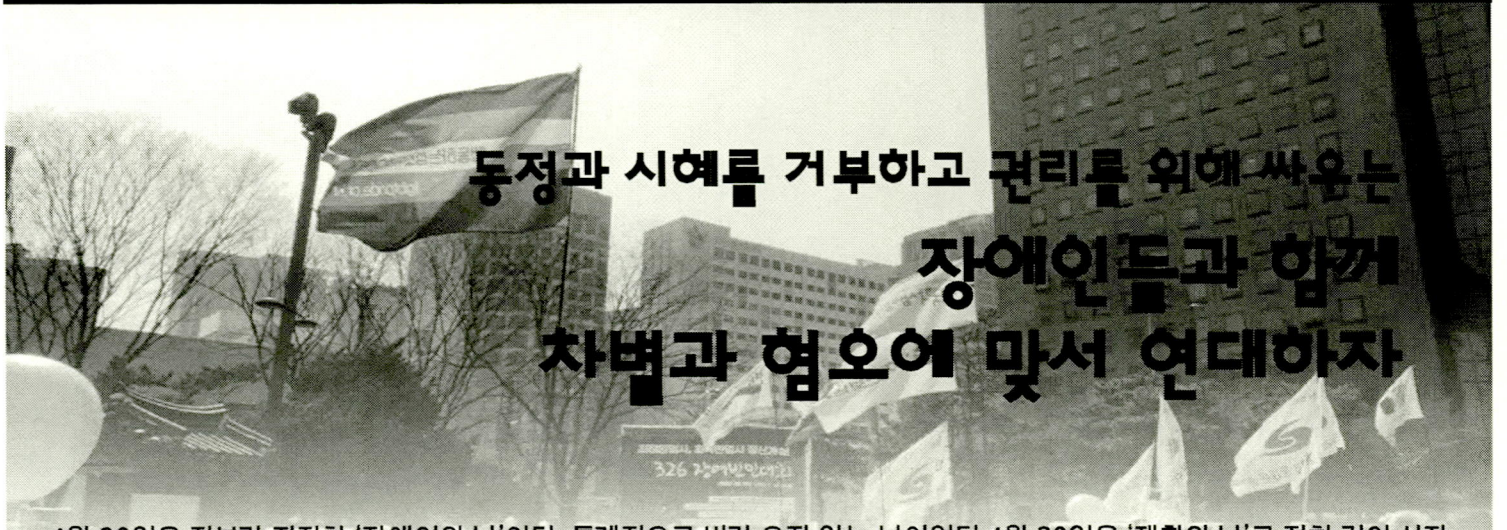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구 동성애자인권연대)

| 발행_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 웹진_ lgbtpride.tistory.com | facebook_ [LGBTQaction](https://www.facebook.com/LGBTQaction) | twitter_ [@lgbtaction](https://twitter.com/lgbtaction)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던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을 그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생색내기식 하루 행사를 치루는 데에 머무르던 이 날을 거부하고 2002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언하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은 지독한 편견과 억압, 또 그에 맞선 저항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발전시켜왔다. 과거 성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주장들 중에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호소한 목소리가 있었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거스르는 행동이 자신들을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취급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장애인 운동은 이런 맥락에서 성소수자 운동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육우당을 비롯하여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친구들을 추모하는 4월은, 장애인 동지들을 추모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의 배제와 차별에 투쟁을 집중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행성인은 2004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필두로 장애인 운동과 다양한 만남과 연대의 자리를 가져왔다. 그 사이 장애인 운동은 성소수자 운동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었다. 서울시청 점거 농성 당시에는 가장 먼저 달려와 목소리를 같이하고 물품을 후원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행성인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과 함께 육우당 추모문화제를 주최한다. 일련의 취지 아래 최근에는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 맺는 시도 속에 연대는 굳건해질 것이다.

'화목한 이성애 가정의 근면한 비장애인 백인 남성' 같은 이미지가 모두에게 인간다움의 기준이 되는 상태야 말로 거짓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장애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사회에서 저항과 연대는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교육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연대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구 동성애자인권연대)

육우당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으로 2003년 4월 25일 동인련 사무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와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성소수자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육우당을 기억하며 변화를 일구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현실은 단단합니다. 조직화된 성소수자 혐오의 목소리가 인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한 육우당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육우당이 바라는 세상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랑, 평등한 권리를 바라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故육우당 12주기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성소수자들을 기억하는 추모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기독교인 故육우당 12주기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억하는 추모기도회

:: 일시 4월 25일(토)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ODMCC, 길찾는교회, 무지개감신, 섬돌향린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혁명기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캠페인

:: 일시 4월 25일(토) 오후 3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진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청소년 성소수자 故육우당 12주기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이상한恨 연대 문화제**

:: 일시 4월 25일(토) 오후 4시 ~ 6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